

오늘 2036 하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 전북 VS 서울, PT 맞대결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 직접 발제자로 나서

각각 올림픽 유치 당위성 설명... '중도표' 확보 마지막 분수령

지난 2023년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 '대행사'는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기업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치열한 프리젠테이션(PT)을 선보인다.

PT는 어떠한 일을 선정하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맡길 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완벽한 PT를 보고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PT 맞대결이 성사됐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표결 전 서울시장과 전북자치도의 PT가 진행된다. 이번 PT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PT발제자

로 나선다.

첫번째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번째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각각 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대의원들 앞에서 설명한다.

PT시간은 각각 45분 발표 후 15분간 질의응답으로 이뤄진다. 이후 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를 거쳐 대의원들이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를 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은 치열한 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PT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은 이른바 '중도표' 확보를 위한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북은 이번 PT에 나들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가사업 확보나 각종 공모 유치를 위해 김 지사는 그동안 수차례 PT를 직접 해왔다. 이런 경

험을 바탕으로 김 지사는 이른바 'PT 도시사'로 불릴 정도다.

한편 이날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선정에는 전체 대의원 120여명 가운데 올림픽 38개 종목의 대의원 2명씩 총 76명만 투표에 참여한다.

하계 올림픽 종목은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사격, 양궁, 유도, 태권도, 레슬링, 체조, 펜싱, 역도, 핸드볼, 하키, 조정, 카누, 요트, 근대5종, 사이클, 승마, 트라이애슬론, 골프, 럭비, 스쿼시,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이다.

동계 올림픽 종목은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컬링, 아이스하키 등이 이번 표결에 참여할 예정이다.

/뉴시스

## “국가균형발전 위해 올림픽은 비수도권에서”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대한체육회 대의원에 지지 호소

“스포츠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만큼 전북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각본없는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대의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사진)은 올림픽 전북 유치 당위성을 전파하는 데 여념이 없다.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 유치 도전장을 낸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날까지 오롯이 올림픽만 보고 달려 온 정 회장은 투표권이 주어진 올림픽 종목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특히 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 전주와 서울 그리고 전국을 수없이 오가는 중형무진 행보도 모자라 정 회장은 비상체제로 돌입, 아예 서울에 머물며 인적 네트워크를 총가동,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회장은 동분서주하는 것은 바로 올림픽을 통해 변

방이라 불리는 전북, 그리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지방)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대의원들을 비롯해 전국 체육인들에게 올림픽 유치를 간절히 원하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서울은 1988년 올림픽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했고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비수도권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은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데 전체 대의원 가운데 올림픽 38개 종목(총목당 2표) 대의원 76표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최종 결정된다.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 대의원분들은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분들이며 그 누구보다도 체육을 사랑하고 이해가 깊다”며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 간절한 전북도민들의 마음이 전달됐을 거라 믿고 대의원분들도 지구촌 최대 축제가 특정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곳곳에서 열리기를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올림픽 유치 도전은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이 아닌 호남권과 충청권, 대구 등 이른바 비수도권 연대로 진행되는 것이다”라며 “이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추구하는 선정기준에도 부합되는만큼 국가간 경쟁이 진행되는 본선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태권도진흥재단은 어르신,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등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태권도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2025 태권도 희망나눔교실' 사업을 추진하며 참가 단체를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태권도 희망나눔교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 어르신·청소년 등에 태권도 수련 기회 제공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희망나눔교실' 참가단체 모집

내달 12일까지... 사범 파견, 태권도복·용품 모두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어르신,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등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태권도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2025 태권도 희망나눔교실' 사업을 추진하며 참가 단체를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

태권도 희망 나눔 교실은 태권도진흥재단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연인원 1만8,500명이 참가하는 등 태권도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태권도 교실 참가 신청은 전국 복지시설 또는 특수 취약계층 시설로 지정된 단체로 어르신과 어린

이·청소년,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 가정 등이 대상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전국에서 8개 단체를 선정, 태권도 지도자격을 갖춘 사범 파견과 태권도복, 수련 용품 등을 전액 지원하고 단체별 20회의 태권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건강한 신체 활동과 외부 활동을 통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 희망 나눔 교실에서는 신체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해 태권도 기본 기술과 품새, 호신술, 겨루기, 격파 등의 수련 프로그램

을 진행한다. 특히 교육 기간 중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단체를 선정하여 11월 중 태권도원으로 초청해 1박 2일 일정의 '태권도 희망나눔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국기 태권도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국민 누구나 수련 할 수 있는 생활 속 무예 스포츠”라며 “평소 태권도를 접하기 쉽지 않은 여건에 계신 분들에게 태권도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등 직접 찾아가는 만큼 많은 단체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희망나눔교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내달 2일 전북현대 N팀 K3리그 홈 개막전

완주공설운동장서 김해시청과 경기... 지난 시즌 우승으로 승격

완주군 홈팀인 전북현대모터스 N팀의 2025시즌 개막전이 3월 2일 완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지역 축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현대모터스 N팀은 2024년 시즌 K4리그에서 16승 3무 4패의 우수한 성적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해 올해 K3리그로 승격했다.

올해 K3리그는 15개 팀이 팀당 총 30경기를 치르며, 우승팀은 K2리그로 승격해 실질적인 프로리그로의 입성을 꿈꾼다.

홈개막전에서는 김해시청과 맞붙는다.

개막전에 참석하는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홈팀인 전북현대모터스 N팀의 K3리그 승격을 통해 축구메카 조성,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장 및 군민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완주=열재복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신영옥 전북배구협회장

임기 마쳐... “배구 발전 노력”



‘전북 배구’를 이끈 신영옥 전북배구협회장(사진)이 15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후배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신 회장은 지난 2009년 임기 초반부터 전북 배구발전을 위해 헌신을 기울였다.

신영옥 회장은 “항상 전북 배구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